

대림 제 4 주일

제1독서 : 사무하 7,1-5.8-12.

14-16

제2독서 : 로마 16, 25-27

복 음 : 루가 1, 26-38

숲 정 이

이 주일의 화답송

하느님, 당신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리이다.

강론

FIAT(이루어지소서)

이성우 신부/ 나바위 성당

'하루를 살면서 짜증내기보다는

길가에 텅구는 종이 조각을 보고도 하느님께 감사하며 생활하여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서는 날 「너는 나를 닮았구나!」라는 말씀 듣게 하소서.'

지난 12일자 가톨릭 신문에 소개된 뇌성마비 장애인인 정재한씨의 시 한 구절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려져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았으면서도 사무친 그리움 때문에 부모를 찾아 화해하고 이제는 사랑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 갔으면 한다는 그.

대구 지하철 구내에서 신문을 팔면서 살아가지만 신앙과 시쓰기로 모진 시련을 견디어내는 그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좌절하고 넘어질 때 마다 일으켜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마리아는 인간으로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처녀 잉태라는 하느님의 계획에 대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하며 응답합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되는 것이 없다."는 천사의 말에 완전한 신뢰의 순종을 보여준 것입니다. 인간적인 당황과 두려움을 하느님께 대한 오롯한 믿음으로 극복한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는 엄청난 일이, 구세주 메시아의 내림이라는 크나큰 축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강생 2000년의 역사는 이렇게 한 시골 처녀의 「FIAT」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小貪大失'이란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도리어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인데, 바둑판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네 인생살이에 더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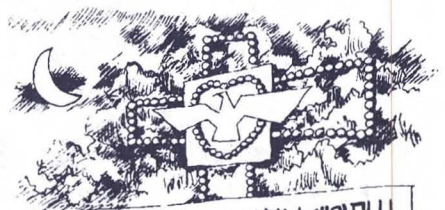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에 매달려 살다보면 드러나 있지 않은 보다 큰 것들을 놓치게 될 우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빙산은 뿌리가 훨씬 더 큰 법입

니다. 그렇지만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부분보다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저 높은 곳에서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보다 훨씬 크게 보시고, 멀리 보시고, 앞서 보시는 그분의 훈수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삶을 가장 현명하게 사는 지혜일 것입니다. 철부지 아이에게 무엇이 이롭고 무엇이 해로운 것인지는 그 아이 자신보다 그를 돌보는 부모가 더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배려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대희년이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으니 이미 200번은 바뀔 만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세상에서 새날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얼룩지고 망가진 세상이 아니라 창조주의 전능으로 새로워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매순간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FIAT」하며 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숲정이 산책



은총의해2000년 대희년 개막행사

"25일 중앙성당에서"

희년목상

“하느님, 당신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리이다.”

송영진 신부

영원히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하고서, 불과 몇 년, 또는 몇 달이 안되어서 헤어지는 연인들과 부부들을 보면, 그들의 국어사전에는 ‘영원’이라는 낱말의 뜻이 다르게 적혀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니다.

또, 우리가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의 은혜는 가이없어라”라고 노래하지만, 요즘 어린 자녀들을 버리고 무책임하게 가출하는 부모들에게까지 ‘부모님의 사랑은 가이없다’는 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짧고 유한한 인생에서, 그래도 우리가 사랑의 무한하고 영원함을 약속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하기 쉬운 이 세상의 인간

들은 그 믿음을 쉽게 배신하고 상처를 줍니다.

“하느님, 당신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리이다.”

우리의 노래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느님 사랑의 영원함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할 자격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이룩했노라’ 하시며 주님께서는 진실하심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서로를 배신하고 서로에게 상처주면서 사막같은 이 세상을 헤메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느님의 변함없고,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만이 평화롭고 진실한 안식처입니다.

소 리

시험 없는 나라

대입수능고사에 이어 고입선발고사가 끝났다. 해마다 온 국민이 입시라는 중증의 열병을 앓고 있다. 그런데도 입시를 개선하자는 논의는 무성하여도 아예 없애자는 말은 안나온다.

엄격한 신분 사회인 봉건시대에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삶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결정되었다.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무관한 핏줄에 의하여 평생 먹고 살 밥그릇이 결정되었다. 당시는 교육이 개인 교습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산업혁명으로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자본사회로 접어들면서 학교교육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가방끈의 길이가 밥그릇의 크기는 물론 능력이며 인품을 가름하는 척도가 되버렸다. 마치 봉건사회에서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그러나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하느님에 대한 믿음, 정직, 성실,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협동, 희생, 봉사 같은 것들은 학교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다. 오히려 가방끈의 길이에 반비례하는 경우를 더 많이 본다. 그런데도 우리는 학교교육에 목을 매달고 있다. 졸업장 때문이다. 졸업장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을 못받기 때문이다.

졸업장이 쓸모 없는 나라, 하여 입학 시험으로 온 국민이 몸살을 앓지 않는 나라, 시험에서 해방된 학교와 나라는 불가능한가. 아침에 와도 1테나리온, 점심때 와도 1테나리온, 해거름에 와도 1테나리온을 주는 포도원은 성서에만 나오는 옛날 이야기인가. [인]

정직, 정품, 정량
보일러 청소/ 신용카드 환영
백 마 석 유
백동유(석유) 보일러 등유
사무실 통배달
허 정 절(마태오)
이 영 선(데레사)
☎ 283-6210/225-5119

전 일 관 광

2000년 대희년을 맞아
성지순례 출발합니다
조 선(안토니오)
☎ (0652) 288-6666

원진도어, 현관문 생산처

(고급현관문, 대문, 중문, 방화문)
노 승 환(스테파노)
배 일 순(아 가 다)
남원시 용정동 166(남원시 입구)
☎ (0671) 625-8338, 01) 633-8338
H·P 011-659-6944

자동차보험 전문회사

LG화재 총괄법인 대리점
(주)에이프러스원 전북사업본부
이 성 기(세베리노)
정 성 옥(리드비나)
서신동 천주교 신협 3층
☎ (0652) 251-3930~2

